

세종대학교 2018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항 및 제시문

(가) 문명은 인간에게 의무의 길을 보여 주는 행동 양식입니다. 의무의 이행과 도덕의 준수는 동의어입니다. 도덕을 준수하는 것은 마음과 열정에 대한 자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 갑니다. ‘문명’에 해당하는 구자라트 어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가 옳다면, 수많은 작가들이 보여 주었다시피, 인도는 다른 누구로부터도 배울 것이 없으며,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정에 탐닉할수록, 더욱 제멋대로 방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행복이 대개 정신적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종종 부자가 불행해 보일 때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은 항상 가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사치와 쾌락을 단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쟁기로 그럭저럭 일을 해 왔습니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것과 같은 오두막집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한 교육은 여전히 예전과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을 잠식하는 경쟁 체계가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업이나 무역에 종사하면서 적당한 보수를 받았습니 다. 우리가 기계를 발명할 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도덕 정신을 상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들만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더욱 나아가 대도시는 함정과 같고, 소용없고 거추장스러운 것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과 강도가 우글거릴 것이며, 매춘과 악이 난무하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작은 마을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의 칼을 윤리의 칼보다 하위에, 지상의 군주도 리쉬(힌두교 사제)와 파퀴르(이슬람 교 사제)보다 하위에 놓았습니다.

(나) “무릇,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 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변오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다) 기원전 11세기경 주가 상을 멸망시키고 황허 강 유역을 지배하였다. 주의 왕은 수도 부근은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족과 공신들을 세습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대신 제후로 하여금 왕에게 경제적 공납과 군사적 보호의 의무를 지게 하였는데 주의 이러한 정치제도를 봉건제라고 한다.

봉건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사상은 종법제와 천명사상이었다. 종법제란, 적장자 상속의 원칙하에 주 왕을 정점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국가로부터 가족 내의 적서 장유의 순서까지 엄격하게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신분 제도이다. 주는 종법제를 통해 피라미드식 사회 구조를 만들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켰다. 천명사상은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덕을 겸비한 인물에게 천명이 부여되는 것으로, 천명을 받은 인물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협력자를 제후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즉 주 왕은 천명을 받은 군주이기 때문에 천자이고, 천자는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로 설정되었다.

“하늘의 명은 이제 상을 떠났다. 하늘은 포악한 정치를 일삼은 상을 대신하여 주에 천명을 내렸다. 주는 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며 천명을 받들 것이다.”

이처럼 주는 상에 대한 무력 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천명사상을 만들어 냈다. 천명사상은 왕권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국 역대 황제들의 전제 정치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통치자의 도덕적 자질에 따라 천명이 이동한다는 관념을 낳아서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는 도덕과 학문에 의한 정치체제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주에서는 하늘의 뜻이 덕의 실천으로 드러난다고 여겨 ‘예(禮)를 중시하였다. 예는 정치는 물론 그릇, 요리, 수레, 복식 등 일상생활에까지 등급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었다.

1. 제시문 (가)는 인도문명에 대한 간디의 설명이고, 제시문 (다)는 황허문명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 (가)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2. 제시문 (가)의 간디의 주장을 (나)와 (다)를 활용해 비판하거나 또는 제시문 (나)의 허생의 주장을 (가)와 (다)를 활용해 비판하라.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